

한·일 여자고등학생의 가정과에 대한 관심과  
학습요구의 실태조사  
-가족과 보육을 중심으로-

이 수 희\* · 牧野カツコ\*\*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 · お茶の水女子大學 生活科學部\*\*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oncerns about Home Economics and  
their Educational Needs in Korea and Japan

-In the areas of the Family and Child Care-

Lee, Soo-Hee\* · Makino Katsuko\*\*

*Senior High School Attach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 Ochanomiz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igh school girl students' concerns about the family life education in Home Economics and their needs for learning in home economics classes in order to develop an advisable co-education curriculum.

The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196 first grade students in Seoul in 1993 and 765 first grade students in Tokyo and Kanagawa Prefectures in 1991.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were as follows : 1) students' interests in the area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 students' concerns in their daily life 3) students' interests in a new curriculum for family life education : 16 contents from human birth to death. 4) students' experience with their family, and 5) students' educational needs in Home Economics' teaching method.

The result of our research showed that :

1) Most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Japan had strong interests in their life and life span.

2)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concerns between Korea and Jap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Japan had strong concerns with their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their “future job”, their “looks and figure” and their “hobby and amusement”, these had not been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in Korea and Japan, but had been in U.S.

3) Very few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Japan and especially in Korea had contacts with their grandparents.

4)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Japan showed strong interests in their near future stage, but they showed less interest in the stage of early childhood.

5)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Japan showed their diverse needs for learning in home economics clas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education curriculum for family life education should meet adolescent needs and concerns, and our new curriculum, “from one’s birth to death/one’s life span”, would be more advisable.

## I. 문제제기

시대의 변천과 함께 한국 및 일본의 가정과 교육에도 큰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녀교육의 기회균등화, 여성의 사회참여 급증, 남녀 모두 생활자로서의 능력 함양 필요 등을 배경으로,<sup>1)</sup> 1995년부터 중학교에서 가정과목이 남녀공통·필수가 되었다. 반면에, 고등학교에서는 4차 교육과정부터<sup>2)</sup> 남녀구별 없이 가정·실업교과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학생은 가정과 가사를, 남학생은 기술과 기타 실업과목 중에서 선택해 왔다. 또한 6차 교육과정(1996년 시행)에서는 학습자들이 정보산업과목을 선호함으로써 가사과목이 선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sup>3)</sup> 뿐만 아니라 2000년대를 향한 새교육과정(7차)에서는 모든 교과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뀔 예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가정·가사과목과 관련하여, 급격하게 진행되는 교과과정의 개편 속에서, 가정과목의 교과내용이 학습자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습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家庭이나 家族을 둘러싼 문제의 증가와 家庭機能의 약화, 국제연합부인의 해 10주년을 계기로 고조되었던 남녀평등교육에의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1994년부터 고등학교의 가정과가 여학생만의 필수에서 남녀공통·필수가 되었다.<sup>4)</sup> 게다가 가족을 둘러싼 여러 문제-학생들의 등교거부, 가정내 폭력, 비행이나 약한 학생 괴롭히기, 이

혼으로 인한 편모·편부가정 문제, 고령자의 간호나 복지문제 등-의 급증은 가정과 교육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가정생활을 강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sup>5)</sup>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 모두 지금까지의 가정과목 내용과는 다른, 시대의 변화와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정과 커리큘럼과 교수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정과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족과 보육」영역에 대해서 한일 여고생의 관심과 학습요구를 파악하려고 한다.

## II. 조사 목적

본 연구에서는 :

1) 여자고교생의 가정과에 대한 관심, 일상생활의 관심사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특징을 비교·검토해서 공통점과 상이점을 고찰한다.

2) 가족과 보육의 교육에 관한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여고생의 흥미를 조사해서, 한국과 일본의 특징을 밝힌다.

3) 가정과의 수업방법에 대한 학습요구를 분석한다.

이상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모두 남녀 고교생의 관심에 부응하는 가족·보육영역의 커리큘럼개발과 수업방법 개선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조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 대상자는 <표 1>과 같이, 서울시내의 국·공립고교 2개교와 東京都內, 神奈川縣의 공립고교 8개교의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의 영역 및 가정생활영역에 대한 관심을 질문지를 통해서 조사했다. 한국 및 일본 모두 수도 및 주변의 고교를 선정하여, 학력, 진학율 등이 평균적인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유효자료수는 한국 196명, 일본 765명이며, 조사시기는 일본 1991년 1월-2월, 한국 1993년 8월-9월이었다.<sup>9)</sup>

<표 1> 조사대상학교

한국(명)		일본(명)	
서울사대부속고교	99	橫須賀大津高校	86
명일여고	97	厚木南高校	87
		川和高校	130
		平沼高校	139
		東大和高校	43
		田園調布高校	56
		明生高校	122
		農業高校	102
계	196	계	765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가정과)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자주편성의 커리큘럼<sup>7)</sup>,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과 교과서의 목차<sup>8)</sup> 등으로부터 만들었다.

설문내용은 일반적인 사항 4문항, 고교생의 가정과교육에 대한 관심사항 6문항, 가족과 보육에 관련된 고교생의 현재의 생활에 대한 관심사항 30문항, 고교생의 가족과 보육의 교육 중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흥미에 대한 사항 16문항, 고교생의 가족과의 접촉경험과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사항 10문항, 고교생의 가정과 수업방법에 대한 학습요구 사항 16문항 등 총 8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처리는 HALBAU를 이용해서 백분율로 산출했다.

IV. 결과 및 고찰

1. 고교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관심 :

가정과 교육의 6영역-가족의 인간관계, 가정생활의 운영,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새로운 영역인 자기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한일 여고생 모두 현행 교육과정상의 영역보다 새로운 영역인 「자기자신의 인생」에 대해 제일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여고생은 「의생활」, 「식생활」, 일본의 여고생은 「식생활」, 「의생활」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고, 「가족의 인간관계」의 영역은 한일 여고생 모두 가장 낮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가정학회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sup>10)</sup>, 가정과 교사들이 「가족과 보육」영역에 대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가족과 보육」 이외의 영역에 비해 지도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수업에서 다루기를 기피한 결과,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가정과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학생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가족의 인간관계」영역의 학습내용과 방법을 검토해서, 학생들의 실태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새롭게 변화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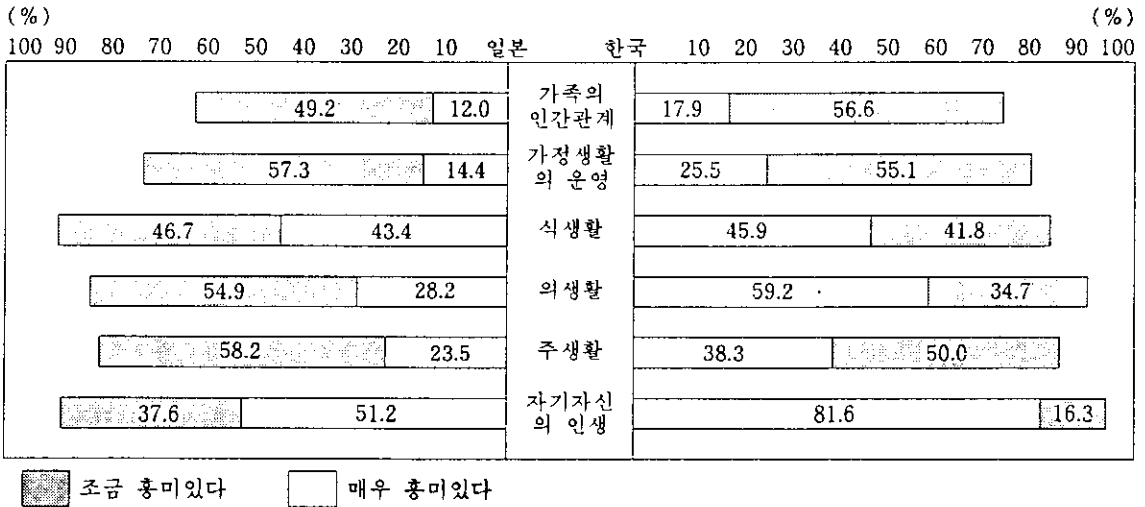
2. 고교생의 현재의 생활관심(가족과 보육에 관련된) :

고교생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가정과)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자주편성의 커리큘럼안,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과 교과서의 목차 등으로부터, 특히 가족·보육의 영역에 관해서 고교생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항 30항목을 선택,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한국의 여고생이 일본의 여고생보다 전반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높았다(관심도 평균치 : 한국 39.9%, 일본 26.2%).

또, 한일 여고생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한일 여고생 모두, 「자신의 개성·성격」, 「장

〈그림 1〉 가정과 교육 영역에 대한 여고생의 흥미(한일비교)



〈표 2〉 일상생활에 대한 고교생의 관심사

항 목	한국		일본		항 목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 자신의 개성·성격	96.9	77.6	청년기의 삶의 태도	51.5	18.7	담배·술	19.9	12.9	
☆ 장래의 직업	95.4	78.3	부모자녀관계	41.3	26.0	노인 보살핌	19.9	16.6	
☆ 용모와 스타일	89.8	58.8	자원봉사활동	38.3	20.7	이혼·재혼	14.8	14.2	
남녀평등	71.9	22.7	☆ 남자다움·여자다움	35.2	25.5	모성과 부성	14.3	6.1	
생활설계	71.4	20.4	성·피임	32.1	17.8	양친의 관계	11.7	11.6	
☆ 아르바이트	70.9	58.8	유아의 보육	28.1	21.2	가족의 법률	11.3	6.4	
☆ 데이트	68.9	28.1	부모의 역할	28.1	15.0	가족의 기능	11.2	7.3	
☆ 취미·놀이	68.9	72.3	노인주택	24.0	12.4	정년퇴직	10.7	8.6	
결혼	58.7	43.7	모성의 건강	21.9	9.5	장난감·그림책	8.7	10.1	
☆ 환경문제	54.6	38.0	고령자의 복지	21.9	18.4	가족의 역사	6.1	6.1	

래의 직업, 「용모나 스타일, 「취미·놀이」 등의 항목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표 2〉에서 ☆한 항목은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에 있는 항목으로 한국 및 일본의 교과서에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거나 미국의 교과서만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항목 중 ☆표를 한 항목이 많은 것은 한일 공통적인 현상이었는데, 양국 모두 앞으로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 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한일 여고생 모두 미래의 가족에 대한 사항보다 현재의 자기자신과 가까운 사항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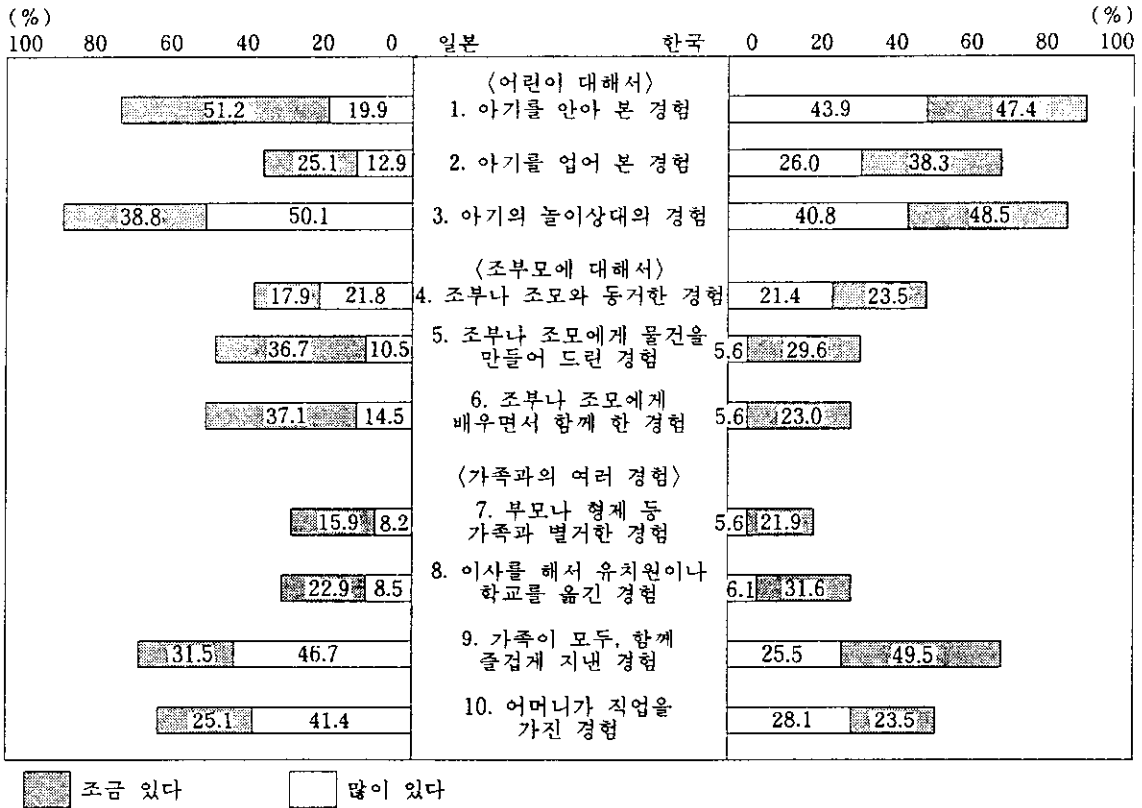
심사가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될 때 가정과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고교생의 가족과의 접촉경험과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사 :

학생들에게 가족에 관한 경험에 대해 답하게 했다. 〈그림 2〉의 항목 1에서 3까지는 어린이와 접촉 경험의 정도, 4에서 6까지는 조부모와의 접촉 경험의 정도, 7에서 10까지는 가족 및 가정생활에 관한 여러 경험의 정도를 보여 준다.

어린이와의 접촉경험의 정도는 한국의 여고생이 일본의 여고생보다 많았다. 이것은 일본보다 한국

〈그림 2〉 가족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한일 비교)



의 경우, 형제 수가 많고(조사대상 중, 한국 : 2인 38.8%, 3인 43.4% / 일본 : 2인 60%, 3인 26.4%), 친척과의 교류가 일본보다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 여고생 모두 조부모와의 접촉정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한국의 여고생의 접촉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고교생의 경우, 가정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한일 가정과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일본의 교과서에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사진이나 그림이 한국의 교과서보다 많이 게재되어 있는데(한국 : 초등학교 1매, 중학교 1매, 고교 2.3매 / 일본 : 소학교 평균 5.8매 중학교 9매, 고교 5매),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가족 및 가정생활에 대한 여러 경험의 정도를 볼 때, 「가족 모두 모여, 함께 즐겁게 지낸 경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험」은 한국의 여고생보다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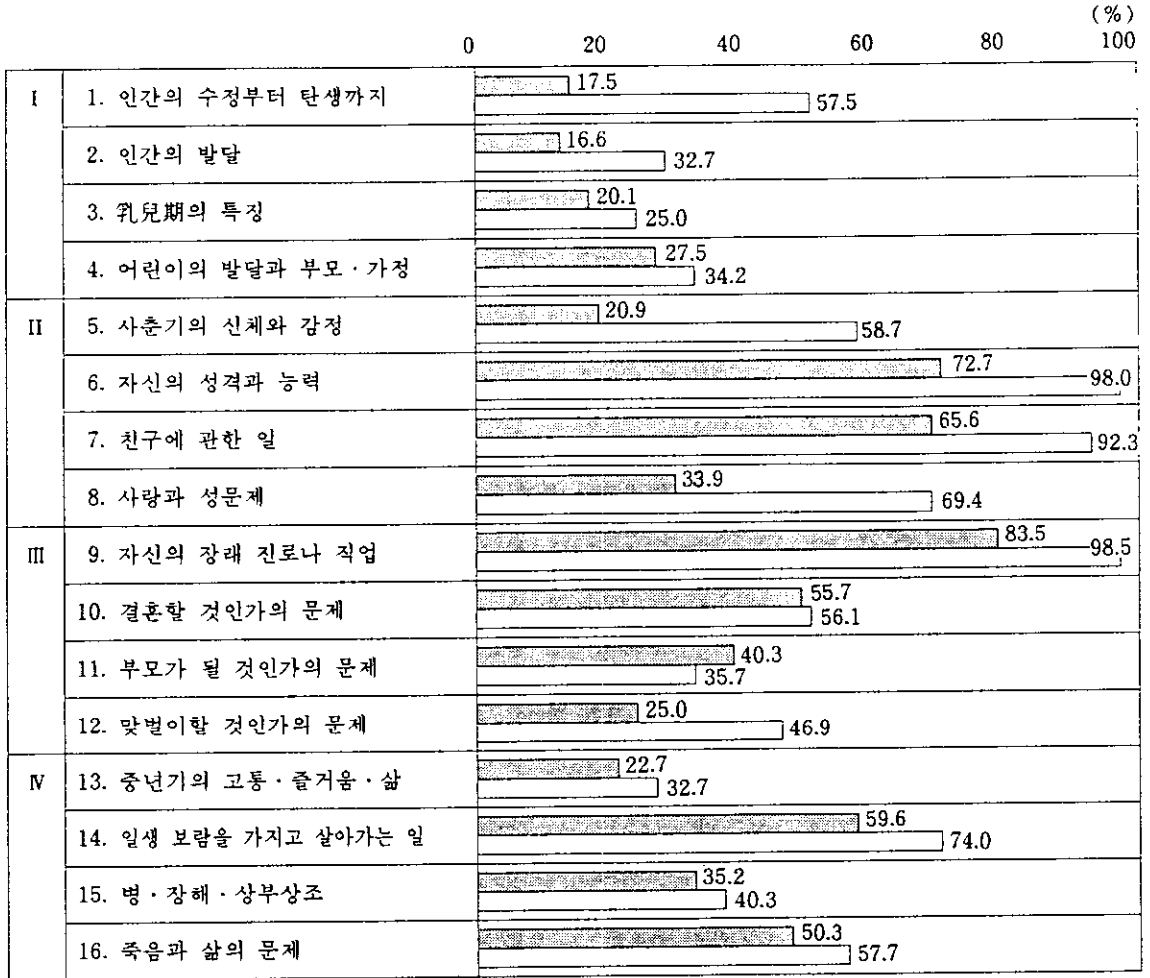
본의 여고생이 훨씬 경험의 정도가 높다. 특히,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험은 한일 모두 50%를 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일 모두 가족에 대한 여러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이 시사된다고 말할 수 있다.

#### 4 고교생의 가족과 보육의 교육 중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흥미 :

가족과 보육의 교육 중, 「출생으로부터 죽음까지 / 자기자신의 인생」과 관련있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4단계의 인생주기에 걸쳐, 16항목에 대해 답을 하게 했다.

그 결과, 〈그림 3〉와 같이 한일 여고생의 흥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1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일본의 여고생보다 한국의 여고생이 상당히 흥미가 높다. 특히, 「인간의 수정부터 탄생까지」,

〈그림 3〉 「가족과 보육」의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한일 여고생의 흥미도  
(출생부터 사망까지/ 자기자신의 인생)



■ 일본 □ 한국

「사춘기의 신체와 감정」, 「자신의 성격과 능력」, 「친구에 관한 일」, 「인간의 사랑과 성문제」, 「맞벌이 문제」 등 6항목에 대해, 한국의 여고생이 일본의 여고생보다 20% 이상 높은 흥미를 보였다. 흥미의 정도에는 차이가 보이지만, 한일 여고생 모두 흥미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똑 같은 경향이 보여졌다. 「자신의 장래 진로나 직업」,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 「친구에 관한 일」 등, 현재의 자기 자신 및 가까운 장래에 관한 사항에 흥미가 높고, 乳幼兒期에 관한 사항에는 대체로 흥미가 낮았다(〈표 3〉참조).

〈표 3〉 한·일 여고생의 인생주기에 대한 흥미도

단 계	한국	일본	평균	순위
I. 乳幼兒期	35.6	20.4	28.0	4
II. 청년기	79.6	48.3	64.0	1
III. 성년기	59.3	51.1	55.2	2
IV. 노년기	51.2	42.0	46.6	3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정과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 자신 및 가까운 장래에 대해, 보다 많이 다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가 낮은 내용은 흥미가 높은 내용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다루든지, 흥미

를 불러 일으키는 교재 및 학습방법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고교생의 가정과의 수업방법에 대한 학습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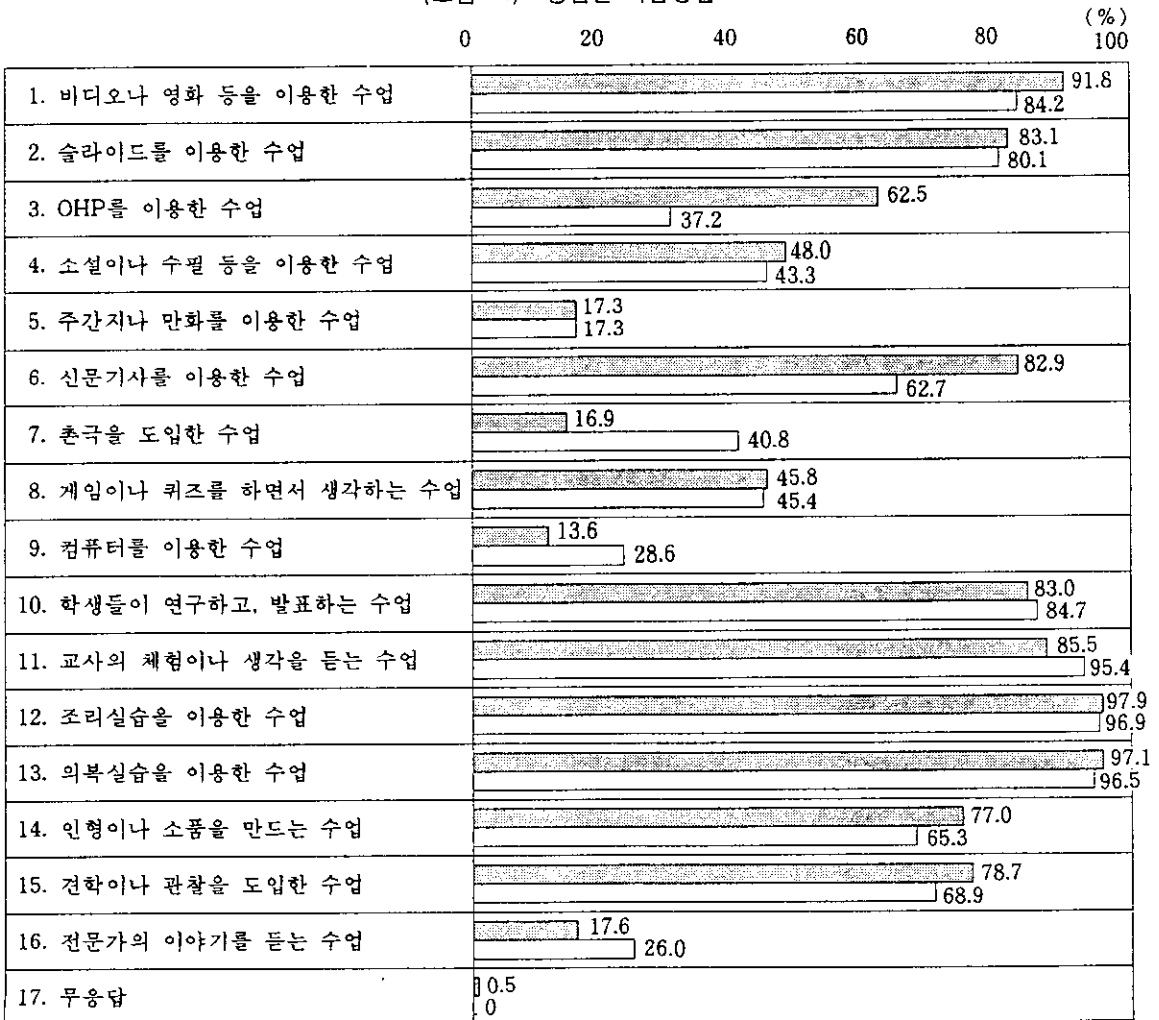
16종류의 학습방법을 이용해서, 수업을 받은 경험 유무와 앞으로 가정과 수업에서 받아 보고 싶은 학습방법에 대해 표시하게 했다.

그 결과는 <그림 4>과 <그림 5>와 같았다. 수업 중 경험한 학습방법에 대해 <그림 4>의 결과를 살펴 보면, 한일 여고생 모두 다양한 수업을 받고 있

다고 보여진다. 특히, 한일 여고생 모두 「비디오나 영화를 이용한 수업」, 「학생들이 연구, 발표하는 수업」, 「학생들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을 발표하는 수업」, 「조리실습을 이용한 수업」, 「의복실습을 이용한 수업」 등의 학습경험이 많이 보여졌다(80% 이상). 그 외, 「OHP를 이용한 수업」이나 「신문기사를 이용한 수업」은 일본의 여고생이 더 많이 경험했고, 「춘극을 도입한 수업」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은 한국의 수업에서 더 많이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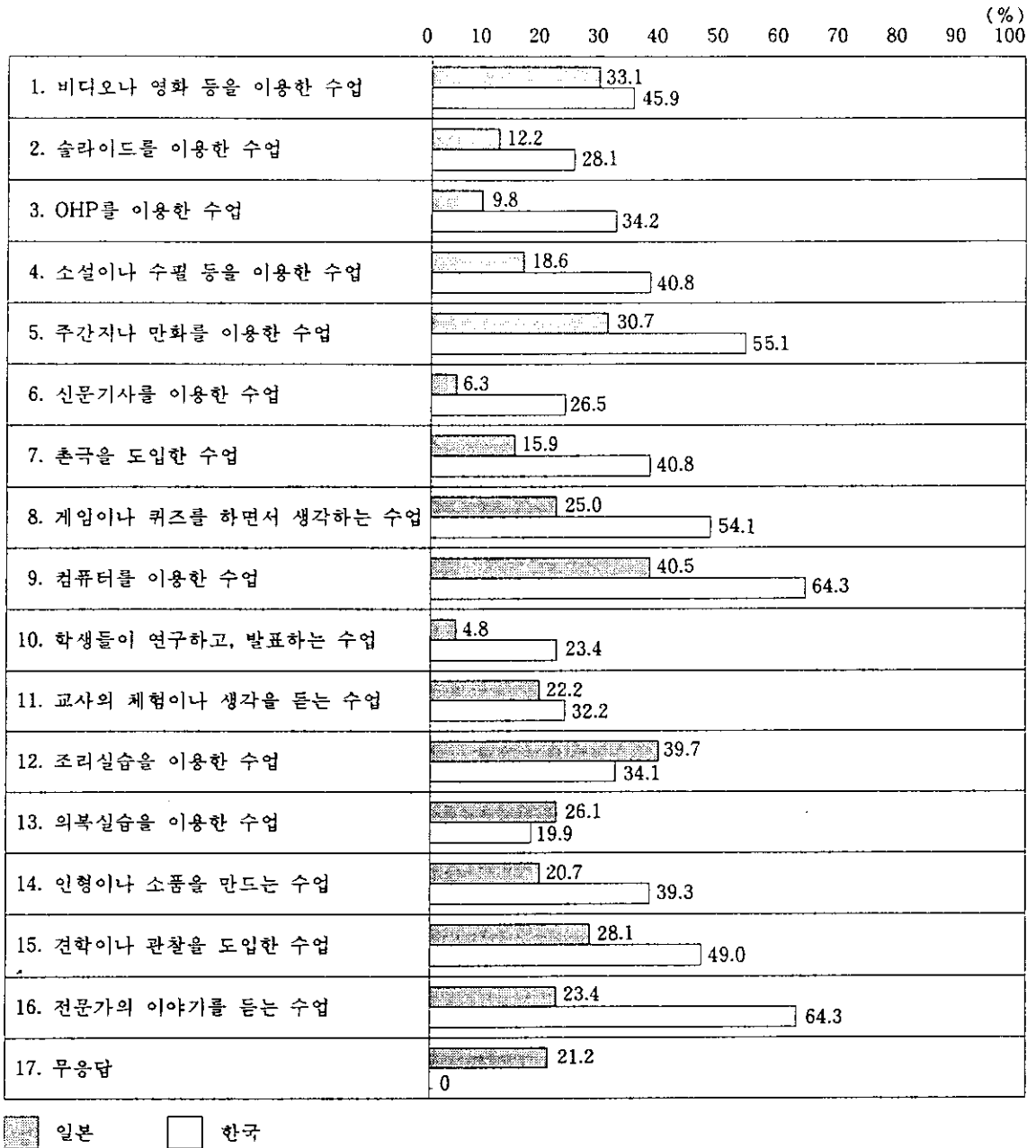
그런데, 가정과 수업을 통해 받아 보고 싶은 학습방법은 <그림 5>와 같이, 한국의 여고생이 일본

<그림 4> 경험한 학습방법



■ 일본 □ 한국

〈그림 5〉 가정과에서 받아 보고 싶은 학습방법



의 여고생보다 다양한 가정과 수업방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가정과목이 입시과목이었기 때문에 이론중심의 수업으로 치우쳐 졌던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 학생들은 가정과 수업이 일방적인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탈피해서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해 보는 수업방식이나, 동적으로 행해지는 수업방식에 대한 학습요구를 하고 있다고 시사되어 진다.



## V. 결과요약 및 앞으로의 과제

한일 여고생의 가정과에 대한 관심 및 학습요구에 대해 수행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1. 가정과 교육의 6영역-가족의 인간관계, 가정생활의 운영,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및 새로운 영역인 「자기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심 중에서, 한일 여고생 모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자기자신에 대한 영역」이었다. 그리고 「식생활이나 의생활」의 영역보다 「가족의 인간관계」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2. 가족과 보육에 관련된 고교생의 현재의 생활관심의 정도를 살펴 보면, 한국의 여고생(관심의 정도 평균치: 39.9%)이 일본의 여고생(관심의 정도 평균치: 26.2%)보다 일반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관심의 정도나 순위의 차이는 있어도, 한일 여고생 모두 「자신의 개성·성격», 「장래의 직업», 「용모나 스타일», 「취미·놀이」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항목들은 현재 한일 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보다 미국의 교과서에서 추출된 항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3. 고교생의 가족과의 접촉경험과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사를 보면, 어린이와의 접촉경험의 정도는 한국의 여고생이 일본의 여고생보다 높았고, 한일 여고생 모두 조부모와의 접촉정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한국의 여고생에게 접촉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4. 가족과 보육의 교육에 관한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흥미를 보면, 한일 여고생간에 흥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1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일본의 여고생보다 한국의 여고생이 상당히 흥미가 높았다.

또, 흥미의 정도에는 차이가 좀 보이지만, 한일 여고생 모두 흥미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똑 같은 경향이 보여졌다. 「자신의 장래 진로나 직업»,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 「친구에 관한 일」 등, 현재의 자기자신 및 가까운 장래에 관한 사항에 흥미가 높았고, 乳幼兒期에 관한 사항에는 대체로 흥미가 낮았다.

5. 가정과 수업을 통해 받아 보고 싶은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요구를 보면, 한국의 여고생이 일본의

여고생보다 다양한 가정과 수업방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학생들은 자기자신 및 가까운 장래에 관심이 높고, 이와 같은 학생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교과내용이 될 때, 학생들이 가정과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므

로 「학생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커리큘럼의 개발과 함께, 이와 관련된 학습방법의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한편, 남녀공학을 위한 새로운 교과내용의 개발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되어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학생, 가정과교사 및 가정과 교육 전문가의 관심을 조사하고, 가족과 보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분석대상이 넓혀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교육개발원(1992), 『제6차 교육과정 각종 개정 연구 중학교 기술·산업과 및 가정과』, p. 93.
- 2) 문교부(1989),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 3) 서울사대부고(1991),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p. 335.
- 4) 牧野カツコ·李秀禧(1994), 「日本および韓國の高等學校家庭科教科書の現状と問題點」, 『年報·家庭科教育研究』第 19·20集.
- 5) 牧野カツコ(1993), 「家族領域の教育内容と教育方法の課題」 大學家庭科教育研究會, 『男女共學家庭科研究の展開』, 法律文化社, p. 83.
- 6) 일본의 조사결과는, 牧野カツコ·鶴田敦子·福留美奈子·綿引伴子(1991), 「家族·保育領域の教育内容と教育方法についての研究(第1報)-高校生の關心-」 日本家庭科教育學會例會報告중의 여고생의 해답을 이용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조사 시기가 다르다.
- 7) 丸岡玲子他(1990), 「いのちとくらしを學ぶ新しい家庭科教育をめざして」 日本家庭科教育學會第33回大會報告. 日本家庭科教育學會四國地區研

- 究グループ(1990), 『家庭科カリキュラムの研究』, 家政教育社. 日本家政學會編(1988), 『新時代への家庭科教育』, 東京書籍 等.
- 8) Valerie Chamberlain : TeenGuide, McGraw-HillBookco., 1985(牧野カツコ監譯(1992), 『ティーン・ガイド』, 家政教育社).
- 9) 日本家政學會編(1988), 『新時代への家庭科教育』, 東京書籍.